

[건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매일경제**

구독

네·카 AI 반격 예고했지만 ...'자금력 무장' 빅테크 승자독식 우려

입력 2023.05.14. 오후 5:45

기사원문

고민서 외 2명

추천

댓글

연내 자체 언어모델 공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혁신과 서비스 출시가 이어지면서 후발주자인 한국 정보기술(IT) 공룡 기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한민국 AI 역량을 상징하는 대표 기업보다 수개월 앞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은 데다, 한국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별도 대규모 데이터 학습까지 실시하는 등 한국 기업과 기술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다는 위기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국내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AI가 거의 모든 서비스에 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을 선점하는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식(winner takes all)하는 구도가 짜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모바일 전환기에 버금가는 변화를 불러올 AI 전환기에 국내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생태계 자체를 외국 기업에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자금 동원력과 누적된 AI 기술력을 발판으로 삼아 '외산 AI'가 세계시장을 빠르게 공략할 가능성을 상정했음에도 구글 바드처럼 강력한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우선 내놓을 가능성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장 네이버는 바드를 등에 업은 구글이 한국과 일본 검색시장에서 일대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에 숨죽이고 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시장에서 92.61%의 점유율을 가진 절대 강자이지만 한국시장은 구글이 1위를 차지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네이버는 그동안 하이퍼클로바(국내 최초 자체 개발 초거대 AI 모델)가 '한국 특화' 엔진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구글, MS에 대항해 업그레이드된 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